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4 양구 KUBA 전국 대학 동아리 야구대회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4.8.19-2024.8.24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강원도 양구 하리 / 구암리 야구장</p> <p>2024년 8월 경희 라이온스는 2020년부터 매년 8월마다 참여해온 양구 KUBA 전국 대학 동아리 야구대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본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라이온스는 수차례의 친선경기를 통해 실전감각을 익히며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p> <p>첫번째 경기는 수원대 전으로 끈끈한 짜임새를 앞세워 10:4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16강 토너먼트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당히 많은 강수로 인해 경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그 다음날로 미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우천속에 경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앞섰지만 경희 라이온스 부원들은 다음경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며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16강 강원대 전, 8강 경북대 전을 다 승리하며 경희 라이온스는 3년만에 전국대회 4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비록 4강 전남대 전에서는 패하였지만 3-4위전 세종대 전에서 승리를 하여 전국 3위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p> <p>이번 양구대회는 오랜만에 경희 라이온스가 입상을 하였던 상당히 의미있는 대회였습니다. 더불어 5박6일 간 함께 숙소에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며 하루를 보내고 매 경기에서 승리를 할 때마다 느끼는 희열을 통해 동아리 부원들 간 단합을 느끼며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의미 있던 활동이었습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준서 (이준서)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2024 경희 라이온스 야구인의 밤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4.11.9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경희대학교 럭비장</p> <p>2024년 11월 10일 경희대학교 럭비장에서 경희 라이온스의 연례행사이자 졸업생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행사인 야구인의 밤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기존 페스티벌 형식으로 술집을 대관하여 연말 송년회를 진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졸업생 선배님분들과 더해 선배님 가족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운동회 형식으로 새롭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줄다리기, 배트 넘어뜨리기, 이인삼각 달리기 등등 다양한 운동회 게임을 진행하였고 모두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p> <p>운동회를 마친 직후에는 교내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2024년 경희 라이온스의 활동보고를 선배님들께 보고하고 추첨을 통한 경품 이벤트등을 진행하며 재학생과 졸업생 선배님들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되었습니다.</p> <p>이번 야구인의 밤 행사는 기존 재학생과 졸업생 선배님들만 국한되어 진행된 행사에서 졸업생 선배님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하였던 행사란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의 좋은 반응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계속 관련 운동회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경희 라이온스라는 동아리가 재학생을 넘어 졸업생 선배님들 과도 화합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동아리가 됨을 기대합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준서 (이준서)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AUBL 7차전 “건국대 글로컬” 전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4.11.10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경희대학교 제 2야구장</p> <p>2024년 11월 11일 경희 라이온스는 AUBL 7차전 건국대 글로컬 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경희 라이온스의 조별 순위는 4승 2패로 2위를 달리고 있었으나, 남은 두게임 중 한 게임을 패배한다면 하위 토너먼트인 버금 토너먼트로 진출을 하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4연승 뒤 2연패를 기록하여 좋지 않은 분위기의 쇄신이 필요하였습니다.</p> <p>경희 라이온스는 건국대 글로컬 전에서 선수출신 부원들의 합세로 이전보다 강화된 타선을 구축하였으나, 투수진이 전반기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회에 3점을 주고 끌려가는 등 좋지 않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투수로 등판한 박준하 선수가 3이닝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아주었고 타선이 짜임새 있게 차근차근 점수를 얻어가며 결국 8:4로 승리를 하였습니다.</p> <p>본 게임은 이제 1승만 하면 자력으로 상위 토너먼트인 으뜸 토너먼트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청신호를 보낸 동시에 전반기보다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진땀승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적신호를 보인 경기였습니다. 이제 남은 1경기인 국민대 전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피드백을 본 경기를 통해 발견하며 AUBL 역사상 최초인 20년 연속 으뜸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경희 라이온스는 발걸음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준서 (이준서)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4 양구 KUBA 전국 대학 동아리 야구대회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4.11.11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경희대학교 제 2 야구장</p> <p>2024년 11월 11일 경희 라이온스는 정기 연습 및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인 국민대 전을 위해 실전감각을 익히기 위해 청백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팀은 팀 체대 VS 팀 비체대로 승부를 겨뤘으며, 팀 체대의 감독으로는 체육학과 21학번 조유나 학우, 팀 비체대의 감독으로는 연극영화학과 23학번 김수연 학우가 맡았습니다.</p> <p>본 경기는 초반부의 팀 체대의 화끈한 타격으로 앞서갔으나, 이후 팀 체대의 투수진 부재로 팀 비체대가 선전을 하기 시작하여 결국 역전을 허용하여 팀 비체대가 큰 점수차이로 승리하였습니다. 본 청백전에는 약 40명의 동아리 부원이 참여하여 연습 자리를 빛내주었고 모두가 경기에 참여하는 등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연습 특성상 일반적인 훈련보다는 청백전등과 같은 경기형식의 연습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시키는 것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습은 기초적인 기본기 훈련도 진행을 할 것이지만 청백전 등의 경기형식의 연습을 진행해 동아리 부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많은 부원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경희 라이온스를 만들고자 합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준서 (이준서)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AUBL 8차전 “국민대” 전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4.11.17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신월 야구장</p> <p>2024년 11월 17일 경희 라이온스는 결전의 날, AUBL 8차전 국민대 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경희 라이온스의 조별 순위는 5승 2패로 2위를 달리고 있었고 이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으뜸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는 상당히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국민대는 1위를 확정지어 본 경기에 힘을 빼고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풀 전력을 가동시켜 경희 라이온스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p> <p>경희 라이온스는 국민대전에서 믿음직 한 1선발 홍승헌 선수의 부진으로 소방수 남의진 선수가 등판하여 급한 불을 꺾으나, 1회 2점을 주고 시작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몰시간에 근접한 경기시간에 따라 타석에서 공이 잘 보이지 않는 조건 등에서 경희 라이온스는 차곡차곡 1점씩 점수를 취득하였습니다. 마지막 회에 경희 라이온스가 8:6으로 앞선 상태였으나, 국민대의 안타로 동점위기에 몰렸으나 김수홍선수의 홈 보살로 8:7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p> <p>경희 라이온스는 벼랑 끝 위기에서 마지막 경기 2연승을 기록하여 6승 2패로 조 2위로 상위 토너먼트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20년 연속 으뜸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최초의 쾌거이며 선배님들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희 라이온스는 AUBL 우승을 위해 한발 한발 뒀어 나아가고자 합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준서 (이준서)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 동 명	AUBL 16강 “홍익대” 전		
동아리 분과	체육분과	동아리명	경희 라이온스
활동시간	2024.11.17	비고	
활동목적	<p>동아리의 목적: 대학인으로서의 야구 실력 향상과 이를 통한 체력 증진,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음과 동시에 동아리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힘쓴다.</p> <p>세부목적: 야구경기를 통한 동아리 유대감 형성 및 체력, 건강증진</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신월 야구장</p> <p>2024년 11월 24일 경희 라이온스는 결전의 날, AUBL 16강 홍익대 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익대는 조 1위로 올라온 강팀이자, 전년도 전국대회 우승을 기록한 전국적인 강팀이었습니다. 이에 경희 라이온스는 주요 선수 분석을 통해 짜임새 있는 야구를 통해 홍익대를 공략하고자 하였습니다.</p> <p>경희 라이온스는 1회 박준하 선수의 제구난조 및 수비 실수가 반복되어 3점을 주고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경희 라이온스는 이전 2경기처럼 출루하여 짜내는 야구를 통해 한 점 한 점 따라가려 하였으나, 상대 선발의 호투에 의해 1점밖에 내지 못하는 등 타선의 난조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차이를 뒤집지 못하고 5:1로 패배하였습니다.</p> <p>올해 경희 라이온스는 다사다난 한 한해를 이어갔습니다. 역대급 퍼포먼스의 전반기를 보였고 여름 전국대회 3위 입상의 쾌거를 이루었으나, 후반기 타선의 침체와 투수진의 부진으로 인한 경기력 하락으로 결국 우승을 목표로 한 AUBL에 16강 진출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희 라이온스의 발걸음은 여기까지 이지만 올 시즌 수 많은 신인 선수들의 발굴과 다양한 학번들이 야구라는 매개체로 즐길 수 있는 동아리를 조성하는 등 성공적인 한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이준서 (이준서)

